

다이와보 - “04 춘하절 컬렉션” 개최

다이와보는 내년(2004년) 춘하절 소재를 “04 춘하 다이와보 컬렉션(Collection)”전시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소재전의 테마는 다이와보의 3개년 계획의 명칭인 “뉴·스테이지(New Stage) 21”로 정하고, 특히 “3개년 계획의 주안점의 하나인 ‘자기개혁(自己改革)’의 의지”를 소재 발표로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부제목(副題目)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협동)/ 새로운 소재와의 만남”을 정하고 여러 소재군(群)을 정선한 랭크·업(rank·up : 등급 인상)을 위하여, 색다른 것을 플러스(plus)하므로 부가가치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신상품에서는 트렌드에 따라, 레이온이나 마와 다이와보의 소재를 합연이나 교직으로 복합화(複合化)하였다. 특히 레이온은 “수퍼코로나”의 원료를 소모방으로 방직한 실을 경사로 하고, 위사에는 면을 사용한 평직물로서 조직이 잘 짜여있으면서 뽀뽀한 감도 있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소재를 개발하였다.

면 100%로 잔털이 거의 없고 매끈하고 균일한 실 “퓨어·컴팩트”는 30수 단사뿐만 아니라 40수 단사로 세번수화하면서 강력도 높이고 이중직(二重織)의 얇은 직물 등을 전시하였다.

경사에 60수 쌍사, 80수 쌍사, 100수 쌍사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얼룩실”로 제작한 것 같은 “랜덤·시리즈(random series)”도 발표하였다. 또한 고밀도 직물 “벤타일(ventile : 습기를 먹으면 실이 팽윤하여 방수성이 좋아지면서 비닐 코팅제품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것이 특징)”계 소재의 현옷처럼 워싱(washing)가공한 소재도 전시하였다.

전번의 추동 전시회에서는 120수 단사의 4합연사로 제작한 매끈한 캐주얼

소재가 호평을 받았었다. 이번에는 140수 단사의 4합연사로 제작한 소재로 만든 스프링 · 코트도 내놓아 더욱 세번수화에 의한 차별화를 보였다.

스트레치(stretch)소재로는 마(麻)를 곁들인 스트레치, 레이온 · 마, 경마 위면 · 폴리우레탄, 면 · 실크의 혼방, 강연 시리즈 등이 있다.

기능 가공에서는 봄철에 많이 날아다니는 꽃가루가 옷에 잘 붙지 않는 화분증(花粉症)대책 소재를 개발하였다.

다이와보는 작년에 “다이와보 · 머티어리얼즈”를 설립하고 마이주루 공장과 와까야마공장에서 차별화된 원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에서 직물까지 일관 생산한 다음 제품으로 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이 텍스타일, 비즈니스와 제품과의 직결을 증가시킬 방침이며,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다이와보를 목표로 한 소재 발표의 서곡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